

화순군, 산림관광 활성화 속도 낸다

50억 들여 한천자연휴양림 내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 추진 백아산휴양림에 트리빌리지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감도.

화순군이 산림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순군은 지역 주요 자연휴양림 등에 대규모 휴양타운을 조성하는 등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산림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천자연휴양림과 백아산자연휴양림에 휴양타운과 트리빌리지를 추가 조성한다.

이에 따라 군은 한천자연휴양림 내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50억원을 투입해 휴양관 1개소(3층, 연면적 871㎡)와 숙박시설 4동(2층, 연면적 511㎡)을 조성한다. 세미나·교육 목적의 대회의실을 설치해 숙박 시설과 연계, 활용도를 높여 차별화를 꾀한다.

휴양타운 조성은 완료되면 한천자연휴양림 내 캠핑장, 유아숲체험원 등 기존 휴양시설과 시너지

효과로 가족 단위 이용객부터 단체까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백아산자연휴양림에는 트리빌리지를 조성한다.

나무위의 오두막, 나만의 아지트 등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자, 새로운 경향에 맞춘 숲 체험형 이색 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누구나 숲에서 즐거움을 만끽

할 수 있는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계해 산림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높아진 산림 휴양시설 선호도를 반영하고 정부 탄소중립 실현에 발맞춰 산림자원 발굴과 개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제주 말고 강진에서 1주일 어때?”

농가 체험 프로그램 접수 한달만에 500명 예약 체류형 관광여행 ‘인기’

강진군의 ‘강진에서 1주일 살기’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진행되는 ‘강진에서 1주일 살기’는 참가자가 6박7일간 농가에서 생활하며 농촌 체험과 강진의 문화, 관광지 등 다방면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8일부터 예약 접수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90여개팀, 500여명이 예약했다.

참여 신청은 1팀 당 최소 2명 이상, 최대 4명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23만원이다. 참가자에게는 조식 6회와 석식 2회, 청자 컵 만들기

나만의 음반 만들기 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강진군 관내 각종 관광시설 입장료와 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강진에서 1주일 살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약 취소 및 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및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진군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농가에 체온계와 손소독제를 제공하고, 체험객에게는 발열 체크는 물론 손소독제, 마스크 등이 포함된 방역 키트를 배부할 예정이다.

김바다강진문화재단 대표는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강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알리는데 힘쓸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활동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힐링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에서 1주일 살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민박집에서 이용 설명을 듣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흥군, 원칙·기준없는 파행 인사...공직사회 술렁

버섯산업연구원장에 6급 발령 전남도 직제 승인 조건 무시

장흥군이 지난 1월에 이어 최근 단행한 파행인사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1월 1일자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정년대기 4명, 기구증원 2명 등 6명을 선발했다.

이 과정에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29일자 행정5급(사무관)에 한해 조건부 승인한 버섯산업연구원장에 사무관승진 선발대상자인 A씨(행정6급)를 직무대리로 발령해 상급기관 직제승인 조건을 무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부당한 인사’라며 익명으로 전남도 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해 지난 달 10일 전남도의 감찰을 받고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도 감찰이후 지난달 28일자로 사무관 교육 중인 A씨를 총무과로 대기 발령하고 전산사무관인 B씨를 버섯산업연구원장으로 부랴부랴 발령조치했다.

이러면서 또다시 이달 5일자로 사무관 교육을 마친 A씨를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분청 환경관리과장으로 발령하는 ‘코메디 같은 쇼’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공석으로 비워둔 서기관(1명) 인사를 5일자로 기습적으로 단행한 것

을 두고 공직사회에 뒷말이 무성하다. 사무관 서열이 무려 7개월이 앞선 행정사무관을 제치고 서기관 승진연한(사무관 경력 4년)에 맞춰 C씨를 농업사무관으로 승진시켜 공무원들 사이에 서열과 경력이 무너진 인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민선 7기 들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파행인사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며 “인사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보장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그동안 버섯산업연구원장 자리에 사무관(5급)을 파견방식으로 채워왔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50만원 준다

함평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허위 실거래 신고 등 대상

함평군이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등이다. 또 타인 명의 거래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 내역 등 1개 이상의 신고 내용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함평군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신고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 등은 자동 종결 처리한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고발해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불법거래 신고는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이나 함평군청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불법거래로 밝혀질 경우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법거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기관

생산성 지수 측정 부문

보건·의료·돌봄·복지 ‘장려상’

담양군이 행정안전부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종합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은 생산성 지수 측정과

생산성 우수 사례 선정 2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담양군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1개 지자체가 자율 응모한 생산성 지수 측정 부문 중 보건·의료, 돌봄·복지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응 역량, 의료시설·복지시설 확충 수준, 탈 빈곤율 등 7개 항목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장성군, 복지이용권 지급

장성군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자 복지이용권 지급을 추진한다.

다음달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인당 1회만 20만원 규모로 복지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인 복지이용권은 교육용 도서 구매, 강의 수강, 면접 교통비 등 재취업 준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이다.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